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트레킹 종주기②

김 종 관 • (주)오리엔트이엠씨 대표이사

2007년 1월 27일 (여섯째 날)

트레킹 사흘째.

안나푸르나 트레킹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일출을 보는 푼힐 전망대로 가는 날이다.

새벽 네 시 반. 주방전담반이 깨우더니 누룽지 끓인 것을 내놓는다. 꼭두새벽인데다 이를 연속 잠을 못 잤더니 입안이 깔깔하고 밥 생각이 없다.

뜨거운 누룽지 물만 조금 마시고 헤드 랜턴을 켜고 출발했다. 그런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온다. 물 한통과 아이젠 밖에 넣지 않은 배낭도 무겁게 느껴진다.

간밤에 묵었던 고라파니 롯지가 해발 2,700m인데 한 시간을 가야 푼힐 전망대에 오른다고 한다.

다른 롯지에서도 일출을 보려고 어둠을 가르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점점 힘이 든다. 배낭을 셸퍼에게 부탁했다. 젊은 총각이 안쓰러운지 더운 물과 영양제를 자꾸 준다.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 어렵사리 전망대에 도착했다.

해발 3,210m. 이번 트레킹 중 가장 높은 곳이다. 어둠이 서서히 밀려나며 빛이 스며들자 사방이 트이며 동서남

북 어디든 보이기 시작한다.

하얗게 눈 덮인 거봉들은 새벽하늘 아래서도 장엄하다.

다올라기리리, 안나푸르나, 마차푸차레, 이젠 이름조차 익숙하다.

잠시 머리 아픈 것도 잊고 셔터를 눌러댔다.

드디어 일출이다. 해가 떠오른다.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산위로 해가 떠오른다. 지붕을 빨갛게 물들이며 해가 떠오른다.

장엄하다. 모두 숨을 죽이고 바라본다. 마침내 산위로 해가 솟았다. 사람들이 금방 왁자지껄하며 소란해진다.

서로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다시 롯지로 내려왔다.

내려 올 때 젊은 총각이 입을 열었다. “제가 ○○동 본당 신부입니다. 끝까지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께는 혹시 불편해 하실지 모르니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진작 예상은 했지만 막상 말씀을 들으니 송구스러워진다.

“예! 신부님! 그러죠.” 그때부터 우리끼리 있을 때는 신부님이요 다른 분들과 함께 할 때는 바오로 형제님이라



분힐 전망대에서 바라본 일출

불렀다.

오늘로 본격적인 삼일 째 트레킹이다.

하루 종일 걸어야 하는데 힘은 빠지고 머리도 아프니 걱정이다. 아마 잠을 너무 못 잔데다가 고산증세까지 겹친 것 같다.

그렇다고 누구한테 내색 할 수도 없다. 내가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사람조차도 얘기 할 수가 없다. 알아봐야 걱정만 할 뿐.

배낭은 아예 출발부터 쉐퍼에게 맡기고 마음을 다 잡으며 천천히 걸었다.

줄곧 내가 힘들어하자 신부님께서 바로 곁에 오시며 도란도란 말씀을 나누며 물이며 간식을 챙겨 주신다.

오늘따라 비탈길도 몹시 가파르다. 나무들도 하늘을 찌를 듯 울창한 정글을 이루며 한낮인데도 햇빛이 잘 안 든다.

마을도 통과하고 학교도 통과하며 경사 심한 돌계단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다.

산들도 깎아지르듯이 멀리 보면 계단처럼 보이다가 가까이 가면 그제 밭과 논을 일구어 논거다. 거기다 보리도

심고 유채꽃도 심어 마을 사람들의 양식을 얻는다.

두 자매 중 언니 자매도 몹시 힘들어한다. 집사람도 배탈이나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강행군이다.

이래저래 신부님만 바쁘시다. 소문 없이 이사람 돌보랴, 저사람 돌보랴. 진짜 보이지 않는 수호천사 역할을 하신다.

그래도 한발 한발 산을 돌고 등성을 넘을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눈 덮인 산군들은 언제나 감탄을 자아내고 힘을 준다.

해가 뉘엿뉘엿하자 멀리 뭇지가 보인다. 몸이 지친 탓인지 유독 더 반갑다. 세 번째 뭇지인 셈이다.

식탁에 둘러앉자 네팔 맥주와 양주로 건배하며 저녁을 먹을 때 젊은 총각이 신부님이심을 내가 공개했다. 모두들 놀래며 어쩐지 다르시다고 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혼난다고 하셨군요.” 하며 한바탕 웃기도 했다. 신부님이 수줍은 듯 속스러워 하는 모습이 소년 같았다.

매번 식사 때마다 웃음과 폭소 판인데 집사람과 언니 자매는 아예 나오지도 못한다. 춥고 떨려서 꿈쩍을 못하겠단다.



모두들 지쳤는지 갈 생각을 안한다... 갈 길은 먼데.....

누룽밥과 김, 간장을 갠다 줬지만 손도 못 댄다.
나도 오늘은 이틀 동안 잠 못 자고 머리 아파 힘들었다
는 애길 하자 이구동성으로 잠 잘 자는 방법들을 얘기해
주신다.

옷은 두텁게 껴입지 말고 내복만 입어라. 슬리핑백도
자크를 풀러 덮고 그 위에 이불을 하나 더 덮어라.

감기약을 두알 줄 테니 먹고 자면 수면 효과가 있다. 또
몸에 붙이기만 하면 밤새 후끈후끈한 핫팩도 주시며 붙이
라고 하신다.

모두들 내일처럼 조언과 도움을 주신다. 진작 알았더라
면... 새삼 전우애 같은 고마움을 느낀다. 덕분에 그날 밤
은 아주 달게 푹 잤다.

2007년 1월 28일 (일곱째 날)

다음날 아침.

어제 숙면한 덕에 기분이 상쾌하다. 식욕도 되살아 난
듯 콩치 튀김과 배춧국이 입맛을 당긴다. 나는 맛있게 식
사를 했지만 아침을 거르는 집사람에게 미안하다.

출발이다. 트레킹 나홀짜다.

오늘 하루만 일곱, 여덟 시간 더 걸으면 내일은 한 시간

정도의 마무리 하산코스만 남아 오늘만 잘 버티면 된다고
한다.

그런데 산행길이 만만치 않다.

저 멀리 해발 2,100m의 데우랄리 봉우리를 넘어야 하
는데 마을 아래로 해발 1,560m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
라가야 하는 코스이다.

어제 밤잠도 푹 자고 아침식사도 잘 했겠다, 처음에는
기세 좋게 출발했는데 웬걸, 삼십분도 못가 쳐지기 시작
했다.

지난 이틀간의 산행이 아무래도 무리였나 보다.

머리는 어제보다 더 지끈거리고 가슴마저 압박감이 들
며 조금씩 아파 온다.

갈수 있을까? 걱정이 커진다. 어쨌든 그래도 가야한다.
깊은 산속이라 가는 것 외는 대안이 없다.

이젠 별생각이 다 든다. '정 참기 힘들면 헬리콥터를 부
르라고 했는데 헬리콥터 한번 부르고 신문에도 나봐?' 싱
거운 생각을 해가며 양손에 스틱을 움켜쥐고 한 발작씩
내디딘다.

집사람도 거의 이틀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도 나
보다는 훨씬 잘 걷는다. 그다지 고통스런 표정도 아니다.



출발준비하는 마지막 롯지의 아침

어디서 나오는 힘일까?

그동안 여기 온다고 태백산, 지리산 등 부지런히 산을 다니더니 그 덕인가? 아니면 여자라서 더 강한 걸까?

물어보며 도와 줄 수도 없는 처지인지라 그냥 속으로 놀래며 간다.

산행 중간 중간 마을과 롯지를 통과한다.

개들도 많다. 대부분 누렁이 아니면 검둥이 인데 진돗개보다 크고 토실토실 살도 많이 찌 된장 바르기 딱 좋겠다고 어느 자매님이 웃기신다. 이곳 네팔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니 공기 맑고 경치 좋은 히말라야 산속에서 천수를 누리며 태평하게 사는 이 녀석들은 그야말로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개들이 주인집 롯지에 든 트레커들에게는 짖지 않고 낯선 사람들만 골라서 짖는다는 것이다.

롯지에 방이 열 개, 스무 개면 많을 땐 손님이 삼십 명도 넘을 텐데 용케도 자기 집 손님은 모두 알아보고 안 짖는다니 이놈들도 제 밥값은 톡톡히 하는 셈이다.

모처럼 라면과 빵으로 점심을 때우고 두 시간 후쯤 다른 롯지 상점에서 결국 긴 나무 의자에 눕고 말았다. 가

슴이 답답하고 더 걸을 힘이 없었다.

신부님이 이럴 때 쓰려고 가져오셨다며 공기 베게를 베어주며 뜨거운 코코아를 한 컵 가득 타주신다. 염치없이 누워 이십분쯤 지나니 좀 나아졌다.

앞으로 세 시간만 더 가면 우리가 목을 마지막 롯지란다.

힘을 내자. 여기까지 왔는데... 짐사람도 걱정 어린 눈 초리로 쳐다본다.

가자! 내가 안가면 모두 못 간다. (나중에 귀국 후 알아보니 고산증이 피로와 겹쳐서 일어난 증세란다.)

언니자매 역시 힘들어하며 출발한다.

드디어 마지막 롯지에 도착했다.

다 왔다고 '다와' 씨 (네팔 현지가이드)가 큰소리로 말했다. 어쨌든 왔구나. 힘들어도 왔구나. 한숨을 돌렸다.

롯지의 마지막 밤.

그동안 함께 수고하며 정들었던 현지 가이드와 포터들도 모두 참석, 안나푸르나의 밤을 아쉬워하며 캠프 화이어 둘레에 모였다.

네팔 민속주를 돌려가며 춤과 노래를 부르고 네팔 장구를 치며 밤에는 더욱더 신비롭게 다가오는 하얀 히말



대장정의 트레킹 마무리인 하산코스

라야 영봉들을 배경으로 또 한편의 흥겨운 축제가 벌어졌다.

~넬싼 뿔리리, 넬싼 뿔리리~ 네팔의 아리랑 같은 민요다.

술의 힘인가? 지난 성탄 때 열심히 연습해 성당 무대에서 선보였던 루돌프 사슴코를 완벽(?)하게 부르고 도저히 한기를 못 이겨 슬그머니 방으로 돌아왔다.

2007년 1월 29일 (어덯째 날)

이제 트레킹 마지막 날인 닷새짜다.

한 시간 정도만 내려가면 끝이란다.

지난 이틀간 너무 고생해서 어제 밤 미리 택시를 예약해 뒀다. 포카라에서 두 시간을 와야 하기 때문에 50불이란다.

아침에 일어나니 교수자매님이 주신 우황청심환 덕인지 몸이 많이 좋아졌다. 택시비를 지불하고 나도 같이 건졌다고 했더니 집사람이 만류한다.

계속 우기기도 뒀해 택시를 탔다. 언니자매와 포터들도 몇 명 동승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좋아 택시지 군용 짐차를 개조해 영

업용으로 만든 것인데 유리창은 깨지고 문짝도 구멍이 뚫려 있으며 계기판도 덜렁덜렁 고무줄로 동여 메어, 이 차가 과연 목적지까지 갈수 있을지 염려스러웠다.

우리나라 같으면 폐차장에서 조차 찾아 볼 수 없는 차 같았다. 그런데도 꼬불꼬불하고 여기저기 움푹 패인 구덩이를 살짝살짝 피해가면서 뽀얀 흙먼지를 피우며 제법 잘 달린다.

덕분에 앞자리에 앉아 히말라야산맥의 아름다운 풍경을 느긋하게 즐겼다.

소요시간 40분. 트레킹 종착지다. 걷는 팀이 1시간 쯤 걸렸으니 차가 꽤나 돌아온 모양이다.

잠시 후 헤어진 얼굴들을 반갑게 다시 만나 마침내 대장정의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트레킹 종주 성공을 환호했다.

드디어 모두들 해낸 것이다. 4박 5일의 안나푸르나 트레킹.

해발 1,500m와 3,210m 사이를 오르내리며 설악산 대청봉 정상을 두 번 반 정도 오르내리는 정도의 코스를 모두들 해낸 것이다.

특히 집사람은 배탈이나 삼일 간 거의 아무것도 먹지



한국말을 꽤 잘하는 현지 네팔 가이드와 함께

못하고 위가 쓰리고 메스껍다고 하면서도 악착같이 트레킹을 완주한 때문인지 스스로 감격에 겨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다.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트레킹!

흰눈으로 둘러싸인 안나푸르나 남봉과 주봉, 다울라기리리, 마차푸차레.

세계의 지붕 같은 산군들.

계절과 날씨와 낮과 밤, 보는 각도에 따라 천의 모습을 보여주는 산.

계곡을 건너고 정글을 지나며 봉우리를 돌때마다 나타나는 산.

어떤 때는 땅에서 힘차게 솟아 오른 듯 보이다가 또 어떤 때는 하늘에 붕 떠 있는 듯 보이는 산.

불 때마다 장엄하고, 불 때마다 신비로우며, 불 때마다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산. 아침에 뜨는 해로 수줍은 듯 구름을 일으켜 얼굴을 가리다가 해질녘 석양으로 금빛 찬란하고, 밝은 달 아래서는 선명한 자태로 그 위용이 하늘에 닿을 듯 당당한 산.

보고 또 보고 거듭 보아도, 또 보고 싶은 산.

그 세계적인 명산을 실컷 보고 또 실컷 걸었으니 이 얼

마나 크신 하느님의 자비인가!

꿈은 꿈을 가진 자만이 이룰 수 있고, 도전도 도전하는 자만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닐까? 꿈 하나를 이루고 스스로에게 대견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느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

이후 하루 반나절 포카라와 카트만두 관광지 몇 군데를 더 돌아보고 8박 9일 일정의 안나푸르나 트레킹 여행을 모두 마치고 무사히 대한항공편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아듀. 히말라야~☺

에필로그

부끄럽지만 이 글을 쓴 이유는 고생도 했지만 감동도 컸기에 그냥 혼자만 묻어 두기 아쉬워서이고, 또 하나는 혹 히말라야 트레킹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입니다.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